

■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채용박람회 가 보시...

高3에서 50대까지 구직자 3500명 복적

부스마다 줄서 면접 대기

대다수 업체들

연봉 2400만~3000만원

“광주에 급여나 근로조건이 괜찮은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서를 이곳 저곳 접수했는데, 좋은 결과를 기다려야겠습니다.”

1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행사장은 오전 10시부터 취업준비생과 졸업생을 앞둔 고교생, 이직을 노리는 직장인 등 3500여명의 구직자들로 붐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관문을 찾기 위해 실업계 고교생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업체 부스 사이를 돌아다녔고, 40대 이상의 구직자들도 행사장 한 편에서 이력서 작성에 한창이었다. 까만색 정장을 차려입은 20대 취업준비생들은 40여개에 가까운 부스마다 줄서서 면접 차례를 기다렸다.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한 기업 부스에는 6~7명이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참여 협력사들의 급여는 2200만~3500만원 수준으로, 대다수 업체들이 2400만~3000만원의 연봉을 제시했다.

취업준비생 최모(26)씨는 “대우에이텍, 현원, 현성오토텍 등 지역에서 잘 알려진 기업의 생산직에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여러 번 취업에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엔 꼭 취업에 성공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현재 직장인이라는 박모(27)씨는 “급여 조건이 좋은 업체가 많아 이직을 염두에



1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기 위해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 이 채용박람회는 지난 3년간 호남권에서만 총 44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두고 행사장을 찾았다”며 “경력 관리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권 업체를 비롯해 모두 36개 협력사가 참여한 이날 채용박람회는 중소 협력사들에게 현대·기아차 협력사라는 인지도를 활용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구직자에게는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까지 3회를 치르는 동안 호남권에서만 총 44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최대 규모의 채용 박람회로 꼽힌다.

졸업을 앞둔 고교생들의 발길도 이어졌

다. 이들은 당장 취업보다는 면접 방법과 이미지 컨설팅 등에 관심이 더 많았지만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남공고 3학년 박모(18)양은 “졸업을 앞두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회사를 찾으러 오게 돼 뿌듯하다”며 “취업할 나이가 된 만큼 무엇이 부족하지 더 공부해서 꼭 취업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경력직 채용이 많았던 탓에 신입을 위한 자리가 더 많았으며 구직자들의 아쉬움도 있었다. 취업준비생인 송모(24)씨는 “면접에 응해보면 신입보다는 경력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가장 취업에

목마른 사람은 나 같은 대졸자들인데, 신입 채용의 문이 더 활짝 열렸으면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협력사들은 현대·기아차 1차 벤더(협력사)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호남권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참석했다”며 “기아차 광주공장의 증산에 따라 10여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현대·기아차의 인지도가 높아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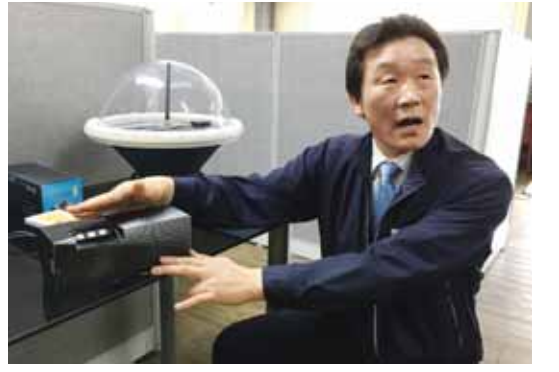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39.90 (+19.94) 금리 (국고채 3년) 1.72%
- ▲ 코스닥 698.31 (+3.87) ▼ 환율 (USD) 1088.90원 (-7.90)

울 첫 우수 클러스터 ‘태일전자’ 선정

산단공, 우수기업 투어

차량용 블랙박스에 장착하는 신개념 라이팅(Lighting) 시스템을 독자 개발한 (주)태일전자(대표 홍종성, 광주시 광산구)가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의 올해 첫 우수 클러스터 기업으로 선정됐다.



홍종성 태일전자 대표가 신제품인 ‘커서빔’을 들고 전자는 가전·전자제품 전문 기업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태일 드스테이트 센서를 이용한 모션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블랙박스 보조라이팅 시스템 ‘커서빔’을 출시했다. 또 에어컨과 냉장고 부품, 노약자 길 안내시스템 등을 생산하며 지난 2012년 매출 96억원을 기록한 뒤 2013년 158억원, 지난해 225억원으로 매년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25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신제품인 커서빔은 블랙박스 옆에 부착하는 보조 조명으로 차량 충격 감지시 빛을 발산해 주차태러를 방지하고, 급가속·급회전시 주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이다.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채용으로 스마트폰 충전이나 캠핑, 야외활동시 랜턴 기능도 겸한다. 올해 2만대 판매를 목표로, 2년 뒤엔 블랙박스를 함께 장착한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엔 황사와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T-나노섬유 필터’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브랜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홍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마케팅 기능을 확충해 소비자들 이 만족하는 품질, 제품을 만들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창의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수 클러스터 기업투어 행사는 산단공이 독자적인 홍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언론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하반기 첫 실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클러스터 회원사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강소기업에게 기업투어와 PR지원 대행 등을 진행한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광주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2603만원

9년전보다 2배 올라

전국은 사상 첫 2억 돌파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국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다.

광주의 경우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9년 전보다 전셋값이 6600만원이나 상승했다.

1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2억93만원으로, 2000년 통계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섰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06년 3월(1억43만원)로, 불과 9년 만에 2배로 된 것이다.

광주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1억2603만원으로 조사돼 9년 전 5997만원에서 2배가 넘는 6606만원이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대구(1억9688만원), 부산(1억7256만원), 울산(1억6154만원) 등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전남의 평균 전셋값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올 4월 말 기준 8604만원으로, 2006년(3591만원)에 비해 5013만원이 올랐지만, 강원(8846만원)과 더불어 1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지난 9년 새 전국의 아파트는 매

매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올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6년 3월 2억1516만원에서 올해 4월 현재 2억8908만원으로 7392만원 상승해 전세가격 상승폭(1억50만원)에 못미쳤다.

특히 전남(1억1758만원), 강원(1억2707만원), 전북(1억4351만원), 경북(1억5107만원), 광주(1억6159만원), 충북(1억6212만원), 제주(1억6631만원), 충남(1억7450만원), 경남(1억9952만원) 등 9개 시·도는 매매가격이 전국의 평균 전세가격(2억93만원)보다도 낮았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윈스톱 서비스’

올 1분기 16건 접수 호응

한국광산업진흥회의 특수 시책사업인 ‘에로해결 윈스톱 서비스’가 업체들의 호응을 얻으며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다.

16일 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2014년까지 각 13건, 11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나 올해 들어서는 1분기 만에 16건이 접수되는 등 이용도가 크게 향상됐다.

광산업체 애로해소 윈스톱서비스는 범무·규제, 세무·회계, 기술·특허, 인증·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애로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광주생산 삼성전자 ‘세프컬렉션’ 냉장고 2만대 판매

16일 삼성전자 모델들이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출시 1년 만에 2만대 판매를 돌파한 삼성 슈퍼프리미엄 냉장고 ‘세프컬렉션’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이 냉장고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 지난 3월 기준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배나 상승했다.

임동률기자 lexian@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한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